



어쩌다 보니,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

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

_ 작곡 인선화

[Verse 1]

알람은 늘 나보다 먼저 일어나 눈 뜨자마자 숨부터 고르고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 어제 보다 조금은 피곤해 보여. 커피 한잔으로 버티는 오전 괜찮은 척 웃는 것도 이젠 능력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다들 가슴에 접어두고 사니까.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멈추면 더 불안해지는 이상한 나이 그래도 오늘을 넘기면 조금은 나아질거라 믿어

[Pre-Chorus]

어쩌다 보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

원한 건 아니지만 포기 못해서 지치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, 월급날을 기다리며 웃어 봅니다. 어쩌다 보니 꿈을 꿔고 삽니다. 현실이란 이름의 무게를 안고서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그 래, 이렇게라도 살아봅니다.

[Verse 2]

메신저 알림은 쉴 틈이 없고 퇴근 시간은 늘 밀려나고 '괜찮아' 라는 말 한마디에 괜히 울컥해지는 밤도 있고 SNS 속 반짝이는 삶들 부러워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지금 여기서 버티는 나도 생각보다 꽤 대단한거잖나.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.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. 우린 아직 가는 중이니까. 아직 끝이 아니니까.

[Chorus]

어쩌다 보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

눈물 삼키며 웃는날도 많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믿어서. 어쩌다 보니 오늘도 달려갑니다. 소소한 이밤 하나 품고서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그래 이렇게라도 살아봅니다.

[Bridge]

언젠가는 이 모든 날들이 웃으며 말할 추억이 되겠지.

그때에 내가 지금에 나에게 잘 버텼다. 꼭 말해 주길.

[Final Chorus]

어쩌다 보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

누구보다 솔직하게 버티며 작은 월급날의 기쁨 하나로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.

어쩌다 보니 내일을 믿습니다.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해.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우리 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.

[Outro]

어쩌다보니 그래도 아직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